

11월 21일 005면

“경제회생 최우선

내년예산안 심의”

박돈규 대구시의회

예산결산추 위원장

박돈규 대
구시의회 예
산결산위원
회 위원장<사
진>은 20일
“대구시의 경
제회생을 최
우선으로 한
다는 전제하



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”
고 말했다.

이날 열린 대구시의회 제156회 정
례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으로 선
출된 박 위원장은 “소모성 경비나 불
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과감하
게 삭감하겠지만, 대구경제회생을 위
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
있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박 위원장은 또 “각 상임위에서 심
의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겠다”며
“낭비적이고 중복적인 투자사업은 없
는지,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
한 국비보조사업 때문에 예산운용에
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
갖고 심의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예결위 활동은 다음달 11일부터 14
일까지며, 예결위원은 모두 11명이
다.

김진욱기자 jwook@yeongnam.com